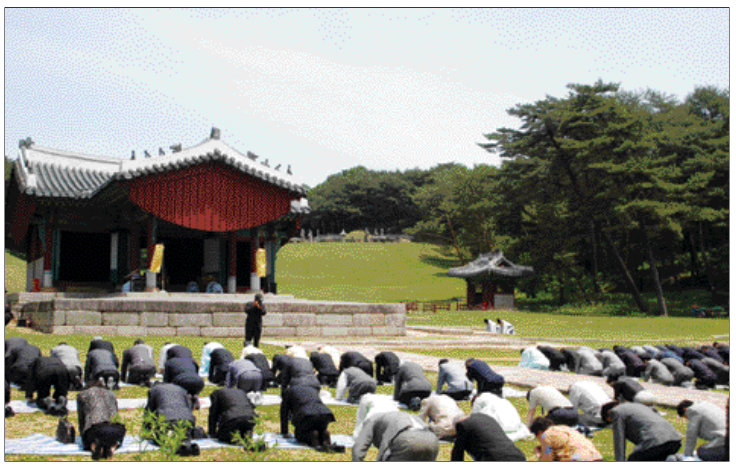
구리시 동구릉의 문종대왕 顯陵祭

헌관으로 權晋澤 화산부원군종회장



▲ 현릉제가 봉행되고 있다.

▲ 권진택 아헌관이 문종대왕과 현덕왕후 위전에 작헌하고 있다.

6월 1일 11시 경기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의 조선조 제5대 문종文宗대왕과 그 비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현릉顯陵에서 전주리씨대동종약원의 현릉봉향회顯陵奉香會가 받드는 능제가 봉행되었다. 현릉제는 2004년부터 매년 6월의 첫일요일을 정일로 하여 봉행하고 있는데 금년은 6월 1일이 그날이었다.

안동권씨는 왕실의 부원군집안, 즉 임금의 처가로서 현덕왕후의 친정집안을 대표해서 현릉봉향회에 협력하여 능제에 참반하고 있으며 우리 권씨에게 그 아헌관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밀공파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종회장 권진택權晋澤씨가 헌신하게 되었고 봉로奉爐에 권오달權五達, 내봉內奉에 필자 권재종權在琮, 사준司 에 권병일權炳逸씨가 분정되어 봉무하였다. 경인지역의 안동권씨문중에서는 권병홍權炳洪 기로회장 이하 기로회원, 권영걸權寧傑 근기요산회 부회장과 회원 및 화산부원군종회 권정택權貞澤 부회장과 종원 등 30여원이 참반하였다.

행사는 10시 반 경에 능역 초입의 재실에서 헌관 이하 제집사가 제복을 갖추어 입고 전주리씨종약원 이윤호李潤鎬 전례위원의 지도로 습의習儀를 한 다음 11시 30분에 황등黃燈을 앞세운 초헌관 이하의 행렬이 재실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릉에 당도한 행렬은 홍살문을 거쳐 신실神室을 차린 정자각丁字閣 월대 아래 당도하고 헌관과 제집사가 각기 위치에 자리하는 한편 참반원은 정자각 앞의 어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 도열하였다. 그리고 집례의 창홀에 따라 집사자·헌관·참반원의 국궁사배와 진선進膳·초헌례·독축讀祝·아헌례·종헌례·망료례 등의 행례가 13시경에 끝났다.

예를 마친 헌관 이하 참반원의 기념촬영이 있고 이주영李珠榮 현릉봉향회장의 인사말과 주요 내빈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행렬을 이루어 재실로 돌아와서는 그 바깥마당 건너편의 녹음이 짙은 수목하에 자리를 하고 늘어앉아 봉향회에서 제공하는 도시락과 주음료로 음복을 하였다. 음복을 마치고는 안동권씨 참반원 일부는 경내의 건원릉健元陵·휘릉徽陵·원릉元陵을 봉심하며 숲길을 산책하고 오후 3시가 넘어 귀로에 올랐다.

이날은 청명한 날씨에 초여름 햇살이 따가웠으나 능원의 울창한 수목 사이에서는 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한편 필자는 안동권씨종보사의 초대손님으로 동남아에서 서울대학교에 연수온 월남의 베트남사회과학대 구엔 지아도이阮家對 교수, 라오스의 국립라오스대 덱사노라드 세네두앙데드 교수 및 캄보디아의 왕립캄보디아대 네드 참로웬 연구원 등 3인이 참반하여 행사과정을 두루 관람하여 이채를 띠었다.

60여만평의 임산에 있는 조선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을 시작으로 조성된 동구릉은 서울의 동쪽에 있는 아홉 능이란 뜻으로 불리는 이름이다. 능이 조성될 때마다 동삼릉東三陵·동사릉東四陵·동칠릉東七陵으로 불리다가 철종 6년, 1855년 8월 26일에 수릉綏陵이 들어오면서 동구릉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동구릉에는 모두 9릉 17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현릉, 14대 선조宣祖와 원비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 및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金氏의 목릉穆陵, 16대 인조仁祖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휘릉徽陵, 18대 헌종憲宗과 비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金氏의 숭릉崇陵, 20대 경종景宗의 원비 단의왕후端懿王后 심씨沈氏의 혜릉惠陵, 21대 영조英祖와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의 원릉元陵, 24대 헌종憲宗과 원비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金氏·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洪氏의 경릉景陵이 3쌍릉으로 있고 마지막 수릉은 순조純祖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원묘인데 그 아들 헌종이 즉위하여 익종翼宗으로 추존되며 능으로 승격되고 그 비 신정왕후神貞王后는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高宗을 입후하여 등극시킨 조대비趙大妃이다.

세종대왕의 장자 문종은 태종 14년, 1414년 10월 3일에 나서 세종 3년, 1421년에 8세로 세자에 책봉되고 1450년 2월 22일에 37세로 즉위했는데 동국병감東國兵鑑·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節要를 편찬하고 전법구편戰法九篇을 저술하는 등 문예진흥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1452년 5월 14일 경복궁의 천추전千秋殿에서 39세로 승하해 같은 해 9월 1일 이곳 현릉에 장사하였다. 그 비 현덕왕후 안동권씨의 초휘는 순임順任이고 안동권씨 부정공파 시조후 16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경혜공景惠公 권전權專의 딸로 태종 18년, 1418년 3월 12일 충청도 홍주洪州의 합덕현合德縣에서 출생하여 세종 19년, 1437년에 세자빈에 책봉되고 문종이 즉위하자 사후에 왕후로 추봉되어 현덕의 시호를 받았다. 문종의 세자 시절 세종 23년, 1441년 7월 23일 단종端宗을 낳고 다음날 산후병으로 24세로 훙서했다. 아들이 즉위한 뒤인 단종 2년, 1454년에 인효순혜仁孝順惠의 휘호徽號를 추시받고 문종과 함께 종묘의 영녕전永寧殿 제6신실에 신주神主가 봉안되었다. 처음 경기 안산安山에 장사하고 소릉昭陵이라 했는데 세조 때 폐릉되었다가 중종 8년, 1513년 4월 21일에 복위되어 문종의 현릉 동편으로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소생은 단종 위로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있는데 영양위寧陽尉 해주海州 정종鄭悰에게 출가했다.

<사진 權奇允 · 글 權在琮>

▲ 헌관 · 제집사와 안동권씨 참반원이 행례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주·완주종친회 운곡서원 탐방

▲ 운곡서원을 봉심한 전주 · 완주 종친회원들이 시조 태사공 신도비 앞에 모였다.

전북 전주·완주 안동권씨 종친회(회장 權寧平)는 연차별 선대 유적지 탐방 행사로서 작년 2007년 5월에 충북 음성의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묘역 및 유적지를 순례한 데 이어 금년에는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의 운곡서원雲谷書院을 탐방하였다. 운곡서원은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太師公을 주벽主壁으로 받들어 제향하는 서원이다.

6월 16일 전세버스 1대에 남녀회원 43명을 태운 일행은 전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여 12시 반에 운곡서원에 도착하였다. 서원의 경현사景賢祠를 알묘謁廟하고 1시간 가량 경내를 봉심한 다음 경주 시내로 나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경에 경주를 출발해 귀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차중에서는 운곡서원의 내력을 만들어 유인물로 준비해온 것을 각자에게 배포하고 설명해 주었다.

전주에는 7시 반에 귀환하였는데 일행중 순창교육장을 지낸 권효택權孝宅 전교장이 금년에 8순을 맞은 감회도 풀 겸 전회원의 저녁 식사를 전담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순배를 곁들인 만찬을 즐기고 9시가 넘어 파하여 귀가하였다.

<전주 · 완주종친회 제공>